

‘장흥 9경·9미·9품’ 재선정…지역 관광 활성화 나선다

대표 명소·먹거리·특산품 재정비
주민·관광객 의견 반영…경쟁력 ↑
편백숲·한우삼합·표고 등 최종 선정

장흥의 관광·먹거리·특산품을 대표할 '9경·9미·9품'이 새롭게 탄생했다. 18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먹거리, 특산품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장흥 9경·9미·9품'을 재선정했다. 이번 재선정은 장흥의 변화된 관광 트렌드와 주민·관광객 의견을 반영, 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흥군은 올해 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월까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 자부심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모두 반영하고자 했다. 1·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후보군을 선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흥군은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와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경·9미·9품'을 최종 선정했다. 위원회는 장흥군의 문화적 상징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신중히 심의했다. '장흥 9경'으로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천관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보림사, 해동사, 선학동마을, 소등섬, 하늘빛수목정원이 선정됐다. 이들 명소는 장흥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사계절 다양한 관광객이 찾는 장소다. '장흥 9미'는 한우삼합(한우+표고+키조개), 된장물회, 키조개요리, 매생이 요리, 굴



장흥군의 관광·먹거리·특산품을 대표할 '9경·9미·9품'로 선정된 한우삼합,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해동사 전경, 천관산 풍경.



장흥군의 관광·먹거리·특산품을 대표할 '9경·9미·9품'로 선정된 한우삼합,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해동사 전경, 천관산 풍경.

구이, 바지락회무침, 갑오징어회와 먹빚, 낙지와 주꾸미요리, 갯장어 사부사부가 선정됐다.

다. 장흥의 청정 바다와 풍부한 해산물, 지역 농축산물의 조화를 보여주는 음식들로 구성

됐다. '장흥 9품'은 장흥 한우육포, 장흥 표고버섯, 장흥 무산김, 청태전(전통 발효차), 키조개, 매생이, 편백제품, 친환경쌀 아르미, 장흥 향토주(하늘수, 술도깨비)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품목은 장흥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재선정을 통해 단순히 대표 브랜드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9경·9미·9품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 방문객 유치와 주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9경·9미·9품은 장흥의 관광, 먹거리,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이번 재선정을 통해 장흥군민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홍=노형록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지역 현안 사업 예산확보 ‘총력전’



공영민(왼쪽) 고흥군수가 지난 1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고흥군 제공>

국회 방문…우주선 철도 등 6건 사업 건의
공영민 고흥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총음지방정부협의회 참석에 앞서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영민 군수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문금주 지역구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갑),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서 갑)을 만나, 고흥군의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

의했다. 고흥군이 건의한 역점 사업은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국가계획 반영)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국가계획 반영)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6천142억원) ▲국립 고흥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1천2억원) ▲농동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200억원) ▲국방 우주발사 시험시설 구축(460억원) 등 총 6건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SOC분야 사업들은 고흥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로, 반드시 국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남해군, 섬박람회 성공 개최 ‘맞손’

섬·해양 관광 활성화 등 상호 협력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8일 "전날 소노감 여수 릴리홀에서 남해군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섬과 해양 관광의 미래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섬박람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기명 조직위원장과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박람회 지자체관 운영 및 문화예술 공연 참여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공동 대응 및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을 통해 양 지



역간 관광코스 개발, 특산품 및 축제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업을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섬과 해양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해군도 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조직위원장은 "남해는 섬 관광과 해

양 생태 자원을 풍부하게 갖춘 여수의 소중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2개월간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개도,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김진선 기자

“개울길 웃음소리”…순천만국가정원, 아이-정원 ‘인기’

여름철 자연친화형 놀이공간 구성
순천시는 18일 "지난 15일 순천만국가정원 개울길광장에서 '초록속 웃음이 자라는 아이-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1천여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초록속 웃음이 자라는 아이-정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뛰놀며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치유 정원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개울길광장(사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연친화형 놀이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놀거리·즐길거리·볼거리가 어우러진 정원 속 생태놀이 터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행사장에서는 ▲모래정원 ▲IP블록존 ▲그린우드 슈팅체험 ▲RC가 정원레이스 등 활동 중심의 놀이 콘텐츠를 비롯해 ▲초록목장 아이스크림 만들기 ▲초록 솜사탕 만들기 ▲아이스(Ice)가든 미션 ▲항공기술 솜속체험(자연 비누·향수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을 바탕으로 '아이-정원'을 가을 시즌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7-8월 야간 정원에서 한여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정원×한옥밤마실'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맨발로 개울길에 들어가 모래를 만지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군, 소상공인 스마트 기기 구입 지원

키오스크 등 구매 비용 최대 100만원
보성군은 18일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 기기를 활용한 경영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각 사업장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웨이팅보드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9일부터 보성군청 경제교통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한도 내 선착순 6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 기기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외식 산업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한국도로공,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남장성분기점 램프구간 수목 식재
장성군은 18일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김준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총 12억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남장성분기점 램프구간)에 이팝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도시숲은 차량 매연과 분진을 차단·흡착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저장, 기후변화 완화 등 환



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장성군의 '천년숲' 구현과 한국도로공사 'ESG경영'을 실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나주시 농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

각각 1천300만원 상호 기탁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와 나주시지부는 18일 "전날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관내 12개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한 정광선 부군수, 이광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 최창기 고서농협장, 김상용 금성농협장, 최용규 대전농협장, 나승수 무정농협장, 김방섭 봉산농협장, 박태식 창평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두 지역의 상생 발전과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담양군 6개 농협(고서·금성·대전·무정·봉산·창평농협)과 나주시 6개 농협(공산·나주·노안·동강·봉황·산포농협)의 임직원 200명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1천300만원씩을 상대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했다. 한편 담양군·나주시 농협은 2023년 800만원, 2024년 1천200만원에 이어 3년째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